

사람이 중심이 되어 나누며 사는 행복한 마을

10년 전만 해도 석교동은 빈집이 늘어가고 활기가 없었다.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 아이들은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에 나와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방과 후 갈 곳 없던 학생들은 한뼘더 교육공동체로 모여든다. 방향하던 청소년들은 청소년마을카페에서 친구도 만나고 직접 카페를 운영해 나가며, 매월 첫째 토요일이면 석교마을신문을 기다리며 설레는 사람들도 많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온 석교동 마을공동체가 마을을 바꾸고 주민들의 삶을 바꿔 나가고 있다.

엄마들, 아이들 위해 도전하다

마을어린이도서관 운영, 방과 후 대안학교 운영, 청소년문화카페 운영, 마을신문 제작! 어느 교육 관련 기업의 사업들일까?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거나 매스미디어 관련 기업의 교육사업의 내용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석교동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다. 석교동 마을공동체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딸애가 책을 좋아하는데 매번 사줄 돈도 없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

고 싶지만 학교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으니.”

“도서관에 한번 가려면 버스를 타고 멀리 가야 하니, 자주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중·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도 없다는데, 우리 애들 책 읽히는 것도 맘껏 못하는 걸까요?”

엄마들의 고민은 그저 아이들에게 책을 맘껏 읽힐 수가 없다는 거였다. 지역 환경상 도서관이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런 제안이 나왔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힘들어도 책 읽는 공간 하나도 못 만들어 줘서 되겠어요? 우리가 엄마잖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독서의 공간 하나 좁은 마련해 줌으로써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록 재원도 능력도 부족한 전업주부들이었지만 석교동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 도전하기로 했다. 바로 석교동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005년 석교동 마을공동체의 첫 테이프를 끊은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알짬’이란 “여럿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다. 엄마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이 정식으로 문을 열기까지는 2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어려운 설득과정을 거쳐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보증금 10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마련하고 엄마들은 각자의 집에 있는 책들을 기부했다. 이사를 가는 논술교사의 후원으로 2,000권의 책을 얻기도 했다. 엄마들이 발품을 팔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저렴하면서도 예쁜 가구를 고르고 골라서 마련했다. 그리고 엄마들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사서가 되고 교사가 되고 청소 봉사자가 되고 간식 봉사자가 되었다. 내 아이에게 편안한 독서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 어린이도서관을 탄생시킨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뼘 더 성장하다

“집에 가봤자 엄마가 없어요. 밥 줄 사람도 없고요.”

“갈 데가 없어요. 빈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어요.”

“학원은 안 다녀요.”

석교동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의 말이다. ‘한뼘디’라는 방과 후 대안학교가 생기기 전 석교동의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었다. 대부분의 가정은 생계형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식사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밖으로 도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한뼘디 교육공동체 대표 김수경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알짚마을어린이도서관이 생긴 후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의 초등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죠. 그 학생들의 상황을 알아 보았더니 대부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2010년에 생긴 ‘한뼘디’라는 방과 후 대안학교였다. 처음에는 알짚마을어린이도서관 공간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기간에 시범



교육공동체 한뼘디

운영을 해보았다. 시범운영 후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다. 반응은 학생들에게서 시작되어 부모들에게 전달되었다. 부모들이 찾아와서는 방과 후 학교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애가 방학이 끝난 후에도 여기에 있고 싶대요. 다른 데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우리애가 달라졌어요. 사춘기라 짜증이 심했는데 요즘은 정말 순해졌어요.”

“방과 후 학교를 계속 운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돕겠습니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여름방학 40일 동안의 기적이었다. 아니, 쌓여 있던 주민들의 욕구와 갈망이 표면화되어 쏟아져 나온 것이기도 했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따라 한뼘디 교육공동체가 태어났다. 고학년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했지만 알짚마을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동네 청소년들을 위해 풀어 놓아야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다.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어 어렵게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그 공간에서 동네의 학생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방과 후 마을학교로서의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동네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가정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아이와 어른이 한 뼉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 마을의 재발견

“저 대전천 건너편에는 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달라서야 원. 우리 동네는 왜 개발이 안 되는 걸까?”

석교동에는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전천을 사이에 두고 초라한 주택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마주보고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바로 석교동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부들이었다.



청소년문화카페 24/7

“비록 아파트단지보다 물질적인 환경은 좋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석교동에는 석교동만의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 환경이었죠. 개발이 덜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이 보전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태환경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어요.”

한뼉더 교육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생태관련 프로그램이었다. 석교동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더불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보문산과 대전천에서 생태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뼉더 교육공동체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시작하였지만 점차 성장학교, 마을학교로서 성장해 갔다. 방과 후 대안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놀토 체험학습, 길 위의 학교, 생태놀이학교 등의 주말체험학교를 실시했다. 다만 일반 학교와는 다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즉,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닌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자연을 만나고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밖에도 청소년문화카페, 마을교사 양성과정, 석교마을신문 등 광범위한 사업을 펼쳐나갔다.

“기억에 남는 사업 중의 하나는 ‘청소년문화카페’입니다. 청소년문화카페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시작 자체가 아이들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아이들 스스로 운영하는 아이들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뼉더 교육공동체를 통해 성장한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석교동에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 부족했던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였다. 청소년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불량하거나 불온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편견의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석교동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건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했고 그러한 의견을 한뼉더 교육공동체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한뼘더 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석교마을의 새로운 가능성을 끄집어내고 그 구심점으로 성장해 갔다.

석교동의 명물 미디어

“여보세요. 거기 석교마을신문이죠? 제가 제보할 게 있는데 00거리에 있는 00약국 아시죠? 내가 거기서 약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거였어요. 그래서 약국에 항의를 했더니 약국에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통기한 지난 약을 팔고도 별일 아니라니!”

석교마을신문에는 이런저런 제보 전화가 많이 온다. 때로는 기사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석교마을신문이 마을 주민들의 신문고이자 아지트이고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꼭 기사화가 되지 않더라도 말을 하고 나니 후련하다.”는 주민들도 많다. 약국 제보가 왔을 때도 석교마을신문에서 약국과 제보한 주민 사이를 중재하여 오해를 풀었으니 석교마을신문은 마을 주민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대화의 통로이기도 하다.

“우리 마을 분위기가 예전처럼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한 아쉬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러한 마음이 석교마을신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석교마을신문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있는 동네 신문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한 달에 한번 매주 첫째 토요일에 발행되는 신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가까호호 신문을 배포하노라면 골목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있다. 신문을 돌리는 것은 어른 기자, 청소년 기자 모두가 참여한다. 조금

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마음을 모아주는 후원자도 나타났다. 이웃의 이야기가 신문에라도 나오는 날엔 신문의 기사로 하루 종일 이웃 간에 이야기꽃을 피운다.

최근 석교마을신문은 마을기업화하여 ‘석교마을미디어센터’라는 이름의 법인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한뼘더 교육공동체의 사업을 넘어 마을 전체의 사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이다. 또한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영상뉴스로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석교마을신문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를 넘어 석교동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에서 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세대의 끈을 이어주고 장벽을 허물어 주는 신문이다. 그것은 신문 이상의 의미로서 석교동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



석교마을미디어센터

엄마들의 유쾌한 성장기

알짚마을어린이도서관은 석교동을 넘어 다른 지역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대전광역시 내에서만 16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주민들에 의해 생겨났다. 또한 이 흐름을 이어받아 2006년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테마기획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알짚마을어린이도서관이 작은 동네의 엄마들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대전지역의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시초가 된 것이다.

알뜰마을어린이도서관의 성장과 함께 엄마들도 성장했다. 아이들과 살림만 알던 주부들이었지만 도서관을 잘 운영하면서 도서관에 온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배워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전문성을 갖춰 나가게 된 것이다. 처음 알뜰마을어린이도서관을 시작할 때는 각자의 관심에 따라 분야를 담당하여 공부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엄마는 역사를, 생태에 관심이 있는 엄마는 생태를 담당하는 식이었다.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설명하다 보니 교사로 성장했고, 주변의 엄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공감대로 형성된 것이다.



한밭두발공정여행

한편, 한뼘더 교육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부들의 교육 및 자기계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장기실업 여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실업여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교육공동체는 마을교사 양성과정을 만들어 마을의 장기실업 여성을 대상으로 역사, 여행, 생태 등의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마을교사, 멘토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역량 계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중에서 여행교사 과정이 특히 활성화되어 ‘한밭두발공정여행’이라는 마을여행활동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배우다 보니, 엄마들 스스로 배움에 대한 열정, 또 새로운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한뼘더 교육공동체에서도 엄마들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뼘더 교육공동체는 더 나아가 주식회사 형태의 ‘마을기업’으로 모양새를 갖추으로써 엄마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에 따라 엄마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주민들의 열정!

석교동 마을공동체는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2014 전국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석교동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온 김수경 대표는 “바쁜 생업에도 뜻을 함께하고 참여해 준 석교동 마을주민들과 공동체 회원들에게 감사”함으로 그 소감을 전했다.

석교동 마을공동체는 그 이름 그대로 주민들의 공동체이다.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의 실체도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전광역시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본질은 주민들이 이끌어 온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주로 엄마들이 주축이 된 석교동 마을공동체가 이처럼 성장하여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성공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지역에서 그것을 궁금해 한다. 그것에 대해 김수경 대표는 이렇게 대답한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물어오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다른 성공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 도서관도 없는 동네에 도서관을 세워야 했고, 학교 끝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기 위해 방과 후 학교인 한뼘더 교육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달랐던 것은 내



허준의 밥상

아이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아이들 모두를 우리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서로 거둔 것뿐입니다.”

2011년 ‘허준의 밥상’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맞벌이 부부의 끼니 걱정을 덜기 위해서였다. 조미료를 쓰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로 엄마들의 아이들 끼니 걱정을 덜어 주는 한편,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텃밭을 로컬푸드의 공급처로 삼아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한 것이다. 2012년에 청소년문화카페를 만들게 된 것도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삶의 환경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해결 방법을 모색해 온 결과가 지금의 석교동 마을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지 않고 그 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내겠다는 주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Interview

김수경 / 한뼘더 교육공동체 대표

“마을의 모든 아이를 내 아이들처럼”

Q. 한뼘더 교육공동체를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한뼘더 교육공동체를 마을기업으로 발전시켰는데 그러다보니 많은 책임감이 따랐습니다. 일반 영리추구 기업처럼 매출 걱정에 매달리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고민이 깊어졌죠. 그러나 제가 부족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힘을 보태 주어서 한뼘더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석교동 마을공동체 전체가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석교동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A. 저는 전업주부로서 그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는 이용자에 불과했고 도서관의 역사체험단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여러 해 동안 지내다보니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중 아이들을 학원에 제대로 보낼 형편이 되는 분들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쌓은 노하우나 경험을 풀어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생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한뼘더 교육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Q. 마을기업인 한뼘더의 실질적인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한뼘더 교육공동체는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가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에서 아주 저렴한 수준이긴 하지만 부모들로부터 받는 회비, 주변의 뜻있는 분들의 후원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역시 적으나마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이곳을 직장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뼘더는 교육공동체인 동시에 마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 운영이 곧 수익”이라는 자세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며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Q. 마을공동체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A. 중심이 되어 나누며 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이나 한뼘더 교육공동체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도 같이 기르고 교육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허준의 밥상, 석교마을신문 등 모든 활동이 내 집 내 식구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